

우리는 고정됨이 없이 화해서 찰나찰나 나를 뿐입니다!

25면에서 계속

이 소리 잘 들으세요. 우리는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화(化)해서 나를 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공(空)이 색(色)이요 색이 공이나라. 그대로 여여함을 알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고' 라는 거 '집'이라는 거, 이렇게 이름을 해 놔기 때문에 그 이름에 걸려 가지고선 외려 더 하지 않나. 외려 팔정도나 육바라밀이니 이런 이름 때문에, 아무 것도 모르는 채 속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걸리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어떠한 거든지, 인간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미운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얕은 사람이나 평등하게 보라, 이라는 거는 자기가 수없는 역경을 거쳐 오면서 어떤 거는 안 돼 봤습니까? 또 어떠한 일은 안 해 봤겠습니까? 한 상황에 처해서 어떠한 문제는 안 일으켰겠습니까? 그러니 그것을 내 모습으로 바라. 모든 것은 내 모습과 같고 내 아픔과 같고 내 슬픔과 같고 또 내 배고픔과 같고, 모두가 내 도량에서 나 아님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셨든 안 하셨든 이 세상 살아가는 진리가 바로 부처님 법이죠.

먼저 깨달아서 우리들한테 전파를 하셨으니까 부처님은 우리의 아주 진짜, 이 세상을 다 준대도 바꿀 수 없는 스승이죠. 그래서 그 스승에게 보답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부모는 자식이 잘 되라는 것이 공경 받으려고 자식을 기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항상...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하면 과거의 부처님만 부처님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도 부처님이고 자기 계신 분도 부처님이요 부처님이 꼭 있지요. 그러니까 만물이 일불이요 일불이 만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고생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별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서역에서 몇백 명씩, 몇천 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수십 명씩 조를 지어서 중국으로 이 법을 퍼려 오셨습니까. 그러나 오다가 열 명이면 한 명 남을까 말까 했습니다. 세상에, 그 소금 요만큼 괴롭음에 매고 오는 거죠. 지금은 신발이나 두둑한 게 있었지만 그때엔 신발도 없고, 모두 짚신 하나 신고 오다가 또 하나 갈아 신고, 그러다 보면 다 떨어져서 맨발로 걷고요. 그 고생하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이 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바로 자유스런 삶을 살 수 있어야 그 역대 조사들한테 보답을 하는 거와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 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요. 지금 사람이 돼 가지고도 자기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또 모습이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요. 사람이 돼 가지고도 수천 년, 수만 년을 이렇게 돌다가 상제계로 차원을 이루는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살다 하천세계로 떨어

지는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긴 상천세계나 하천세계나로 갈라지는 교차로니까요. 교차로이기 때문에 중세계에서는 그렇게 사람 되기가 어렵고 사람이 아닌 데로 떨어지기가 쉽다. 그러니까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것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찰에 와서 종교를 믿고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죠. 어느 종교의 이름이든지 그것은 이름일 뿐이지 그 이름 가지고는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인생이라고 태어나서 한 철 살 때에, 한 철 사는 이 모습과 이 모습 속의 생명들과 한 철 사는 정신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삼합(삼습)이 맞아서 나왔으며... 또 우리가 삼합이 맞아야 인태를 하게끔 돼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모두가 배우면서 실질적으로 느껴 가면서 알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데 주인공을 찾지도 아니 되더라 할 때 질문하세요. 생활이 즉 진리입니다. 그리고 교재입니다.

진리라는 이 자체를,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나도 항상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하죠.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고정된 게 하나도 없다. 만남도 고정되지 않고,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가고 오는 거 먹는 거, 전부 하나서부터 열까지 고정된 게 하나도 없다.' 라고요. 그러니 과거는 바로 찰나 전이고 미래는 찰나 후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도 연방 과거로 돌아가고 있으며. 그러나 지금 그 가운데에서 잘하고 못하고 잘되고 못되고 하는 이것이 대상을 두고서 살아가는 살림살이죠.

그러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점을 하나 내

바른 생각과 올바른 행동과 선의로써 가정을 책임지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뭐든지 될 수 있습니다. 내 그런 얘기를 또 한마디 하였습니다. 다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은행 앞을 3년을 쓸었답니다. 하도 들어다보고 쓸고 쓸고 그러기 때문에 은행원들이 생각하기를 '신문지를 올려서 돈으로 보이게 해 가지고선 앞에 한번 내던져 보자. 그러면 아주 좋아서 들고 달아 나갈 거다.' 이력하고는 신문지보다가 만들고 뭇 덮개만 돈을 붙여서 그것을 내던진다고 해 놓고선, 탄 사람이 교대를 해서 들어오는 바람에 착각을 해서 진짜 돈을 내던지고 그거는 돈 가져가는 데로 보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돈보따리를 들고 가서, 자기 도 공부 못 했으니가 지점장의 이름을 쓰고 그

스님 그거 말고 차에 물건 담아 놓고 위에 덮어서 가는 거.

대중 천막!
스님 천막! 허허허... 천막을 치고선 오돌오돌 떨고요, 추운 가을에요. 그런데 그때가 장마통이라 가을인데도 비가 그냥 한없이 왔거든요. 그때는 여기 짓고 얼마 안 돼서니까 돈이 하나도 없을 때죠. 있었으면 그냥 다 썼을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그러니까 어서 집일 가 봐라. 도중에 당신한테 하늘에서 떨어지는 뭐가 있다면 더더욱 좋을 테고..."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위안의 말에 울음을 그치고 가다가 보니 종이백지 맑은 것처럼 톨톨 떨어져 있는 큰 신문지 덩치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남의 원두막이라도 얻으려면 신문지도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서 신문지를 주워 들고선 비를 맞고 갔죠. 가서 그 신문지를 푸니까, 돈이 잔뜩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전세 얻고, 우선에 구멍탄도 없으니가 구멍탄 한 백 장 들여 놓고, 아이, 그 사람이 그렇게 애길 해요. 허허허... (대중 웃음) 백 장 들여 놓고 쌀 한 가마 들여 놓으니까 세상에 누구도 부럽지 않더라고요. 그대 와서는 "스님, 참 고맙습니다." 그래서 "왜 날더러 고맙대? 내가 오지 않았으면 나도 없을 것이고 내가 너를 보지 않았더라면 너도 없을 것이야. 언제나 사람과 일체 생명들은 다 그렇게 연관이 되고 인연이 돼서 돌아가는 거지. 그렇지만 그저 그렇게 어려워도, 착하고 마음이 정직하고 진실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부터 참, 아무 뜻도 모르면서 부처님의 법이 이렇게 그냥 좋다는 것만 알고 살고 있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 소리가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어저께 저, 전설의 고향인가 그거 보신 분들 있죠? 보신 분들 있으시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지극하게 했으면 그 석관 속에서 빠져 나와서 노인네로 화해 가지고선 삼천 냥을 만들어서 모두를 살리고 장가도 들이고 그랬잖나?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습니다. 꼭입니다. 이런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거든지 내가 마음을 올바르게 하고, 생각을 넓게 쓰고, 인의로써 남의 뜻을 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내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내가 있으니까 상대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모두 잘들 하시면 아마도 보이지 않는 데서 무주상 보시하 내릴 겁니다. 정말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7년 9월 7일 법행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kr)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차원이 높아질 수도 없고 노력 안 하고서 내가 스스로 여여하게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남자를 막론해 놓고, 여러분이 쓰기 쓰는 것처럼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써서 자기네들끼리 모아서 이렇게 낸다면 그것이 바로 훗날에 자기들 자기가 보는 것이 되고 자기가 한 페이지 써 놓은 게 되고, 또 남들이 볼 때도 그걸 보고 교화가 되고, 그건 여러 가지로 보살행입니다.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스님네들이 잘하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한창 기복으로 가던 사람들도 되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 사무장님들러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끼리 하세요. 사무장님 손을 거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시라고 하는 거는 다 뜻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그 자체도 겉으로는 어떻게 하든지 속 내용이 어떤가, 얼마만큼 길러졌나, 얼마만큼 잘하고 있나 이것도 검토할 문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체험담을 한다 이런대서가 아니라 쓰기 쓰는 셈치고 자기의 진실한 마음을 그대로 한 페이지씩 쓰라 얘기죠. 써서 여러분이 한 신행회에 한 권씩 낸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질문을 하시는 데도 일부러 만들어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자기 생각으로 가량이 없는 것 같을 때, 또 여러분

는데 어디가 좋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었나도 합니다. 그걸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떤 게 잘되는가 어떤 게 못되는가, 어딜 얻어야 하나, 이런 건 상식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냐는 용도에 따라서 가게를 얻어야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용도에 따라서 가게를 얻되, 잘 팔릴 수 있고 써지 않고 그런 문제 등을 잘 살펴봐 가지고 책정을 하는 것이죠. 잘되는 거 못되는 것을 알아야 가운데서 그대로 그걸 자세히 봐서 결정하려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지 않습니까, 다! 그걸 잘 봐서 하라는 뜻이죠.

또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잘되는 거 못되는 거, 돈을 버는 거 못 버는 거 이걸 계산을 하지 말고, 못 버는 거 잘 버는 거 이 둘을 다 떠나서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거죠.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굶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럴 때 거기에서 요량이 생기는 것이 결정적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산도 없이 빚을 털떡 얻어 가지고 가게를 얻어서 그걸 한들 이자로 다 빼지지 뭐가 남습니까? 먹고 사는 게 거기서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 못살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아무것도 없으면 차라리 맨손으로 무엇을 들고 다니며 팔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그걸 감당할 수 있다면, 가다 보면 하늘에서 푹 떨어질지 누가 알니까? 허허허...
정성이 지극하면,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울

몇몇 아는 사람 이름도 쓰고 그렇게 해서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집도 마련하고 해서 가정도 살리고요. 그랬는데 아니, 그 학교 지은 사람이 누구누구라고 하니까 그 은행으로 다 왔지 않겠습니까, 신문사에서. 그러니까 자긴 그런 새가 없는데 '심부름 하라고 주셔서 이렇게 했노라'고 자기 이름을 밝힌단 말입니다. 그렇게 했으니 그 미지수로 남았던 문제가 나중에 밝혀지면서, 허허허... 그 사람들이 탄복을 했습니다. 아, 남을 무시하고 그렇게 장난 삼아 한 것이 현실로 벌어졌다는 사실에 놀라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이 그런 줄은 정말이지 모르고 무시했다는 거를 아주 절감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니 이름나서 좋고, 그리고부터 은행 직원들도 그렇지만은 그 지점장도 좋은 일을 늘 해 가더라고요. 거기에서 모두 탄복을 해 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올바르게 사는데도 방한 칸이 없어서 찢찢매고 비를 주룩주룩 맞으면서 "스님, 어떡하면 살겠습니까?" 하고 네 식구, 다섯 식구가 우는데... 그거는 그렇게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아, 그 겁바, 그 땀가 (양 손을 좌우로 벌려 보시며) 이렇게 치는 거 뭐죠? 그 이름이 뭐예요? 왜, 캬뎀 가서 치고 자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대중 탄복요.

황금털사자의 미미소

한국 근현대 선사들의 眞面目을 선시로 읽다.



선의 중흥조 경허 스님에서 고암 스님까지 12명 걸승들의 살림살이가 녹아든 선시의 '완전 이해'

《황금털사자의 미미소》는 한국 현대 문단에 선시의 이론을 세운 독보적 존재 송준영 시인이 12명 선사들의 삶과 수행의 핵심을 소개한 노력입니다.

[송준영 지음 / 여시아문 펴냄 / 575쪽 / 25,000원]



여시아문 02)2004-8237 | 016-217-4845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 국민 023-25-0007-617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